

극지해소식

No.151

31 July

www.kmi.re.kr

발행인 조정희 원장 책임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
작성 김주형 전문연구원, 김지영 전문연구원, 박예나 전문연구원
엄단비 전문연구원, 정다현 연구원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담당자 정다현 051)797-4747 (dhj82@kmi.re.kr)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IMO/국제기구 | IMO, 환북극 이누이트 이사회에 공식적인 자문 지위 부여 2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 해안경비대 해빙선, 북극서 장기간 해양과학조사 4

러시아 | 제3회 '북극-지역들 2025' 포럼, 지속가능 개발과 국제협력 논의 5

러시아 | 바렌츠해 방사능 연구 해저 퇴적물 채취 착수 6

캐나다 | 북극 대사로 이칼루이트 주민 임명 7

캐나다 | 북극 과학 네트워크, 연구 프로젝트에 약110억 원 지원 8

덴마크 | 중고도 장기체공 드론 4기 도입... 북극 안보에 새로운 전기 10

핀란드 | 핀-캐, 美해안경비대용 해빙선 2척 '28년까지 공동 건조 12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 최북단 도시 페베크에 여름 식료품 보급 운항 개시 14

러시아 | 초광역 선도 개발구역제도(슈퍼 TAR) 도입 추진 15

캐나다 | 31억 5,000만 달러 투입 해빙선 건조 16

노르웨이 | 북극 나르비크에 데이터 센터 건립 추진 17

읍서버 국가 정책

중국 | 중국계 선사, 북극항로 활용 중국-유럽 컨테이너 서비스 개시 18

남극 소식

제47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및 제27차 환경보호위원회 밀라노에서 성료 19

일, 남극에 자국 최초 전파망원경 설치... '26년 우리은하 시험 관측 예정 20

극지의 창(窓)

새로운 북극이사회 의장국 덴마크 왕국: 향후 미션과 정책 시사점 22

북극과 사람

'북극권 청년(Arctic Youth)', 북극의 미래 세대이자 오늘의 주체 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본 소식지는 KMI 일반사업인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IMO/
국제기구IMO, 환북극 이누이트 이사회에 공식적인 자문 지위 부여
(2025. 7. 23.)

〈그림〉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 80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자료: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7/15/inuit-circumpolar-council-granted-permanent-status-at-international-maritime-org/>

글 정다현 dhj82@kmi.re.kr

출처1: <https://cabinradio.ca/250081/news/travel/inuit-group-given-full-status-at-international-shipping-body/>

출처2: <https://cyprusshippingnews.com/2025/07/23/clean-arctic-alliance-welcomes-imo-granting-of-consultative-status-to-inuit-circumpolar-council/>

출처3: <https://ici.radio-canada.ca/rci/en/news/2180441/inuit-circumpolar-council-permanent-international-maritime-org>

2025년 7월, 북극 원주민 단체 환북극 이누이트 이사회(Inuit Circumpolar Council, 이하 ICC)가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자문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 ICC가 IMO 회의에 영구적이고 지위 권한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원주민 공동체가 국제 해사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독립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공인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ICC는 캐나다, 알래스카(미국), 그린란드(덴마크), 그리고 러시아 추코치 자치구 등에 거주하는 약 18만 명의 이누이트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1977년 창립된 이후, ICC는 북극 원주민의 권리 보호, 문화 계승, 생계 기반 유지, 환경보호 등 전통 영토에서의 지속가능한 해양활동과 생존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그 동안 북극 해역에서의 선박 증가, 오염 위험, 쇄빙선 항행 확대, 중유(heavy fuel oil) 사용 논쟁 등은 원주민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IMO의 해사 정책 논의과정에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으며, 단기적 초청이나 제3자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우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ICC는 2023년부터 IMO 자문 지위를 공식 신청하였고, 약 2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이번에 정식 지위가 승인되었다.

IMO/ 국제기구

ICC 캐나다 지부의 리사 코퍼퀄룩(Lisa Koperqualuk) 지부장은 “ICC가 IMO로부터 자문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단순한 자문 권한 부여가 아니라, 북극 바다를 ‘고향이자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극에서 벌어지는 해양 활동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이며, 전통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C의 IMO 참여는 북극 환경 규제, 선박연료 규정, 해양 안전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원주민의 시각이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CC는 “IMO의 여러 기술위원회와 하위 기구에 참여해 실질적 의견 표시에 나서고, 북극 지역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 생계 조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지지한 환경단체 청정 북극 동맹(Clean Arctic Alliance)은 “ICC의 자문 지위 획득은 원주민 지식이 북극 해양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 진전”이라 평가하면서 “원주민 없는 북극 논의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출처: <https://www.bairdmaritime.com/work-boat-world/icebreaking/us-coast-guard-icebreaker-healy-departs-for-months-long-arctic-deployment>

해안경비대 쇄빙선, 북극서 장기간 해양과학조사 (2025. 6. 26.)

미국 해안경비대 극지 쇄빙선(USCGC Healy)이 최근 시애틀 항만을 출항하면서 수개월 동안의 북극 배치 임무에 들어갔다. 이번 배치는 해마다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북극 운항 일정의 일환이다. 이번 항해에서 수행할 두 가지 과학 임무는 AMOS(Arctic Mobile Observing System)와 NABOS(Nansen and Amundsen Basins Observational System)이다. 각각의 임무는 북극 해양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장기적 관측 역량 확보를 위한 다학제적 협력 연구의 하나로 추진된다.

AMOS는 미 해군연구청(Office of Naval Research)과 협력하여 진행되는데, 주된 목적은 북극 해빙의 형성과 이동 경로, 대서양과 태평양 해류의 북극 내 이동 경로, 그리고 동시베리아해와 랩테브해의 해양 순환 패턴을 조사하는 일이다. AMOS는 특히 자율적이고, 이동이 가능한 해양 관측 시스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지속적이고 확장할 수 있는 관측 체계를 구축하고, 해빙의 물리적 동역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NABOS 프로젝트이다. 이 임무에서는 장기간 설치된 해저 계류 장비를 회수, 정비 및 재설치하며, 동시에 북극 해양환경에 대한 다학제적 해양 조사를 하게 된다. NABOS는 북극 심해 해양 순환과 열·염분 구조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장기 관측 체계로 과학적 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핵심 데이터를 제공한다.

힐리 호는 미국 최대의 쇄빙선이자, 북극 과학 연구를 위한 과학 장비를 갖춘 유일한 해안경비대 쇄빙선이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번 과학 임무를 통해 물리적·전략적 운용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미국의 북극 전략적 전망과 향후 작전 계획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김지영 jijeong111@kmi.re.kr

출처: <https://arctic-russia.ru/news/stolitsa-pomorja-gotovitsya-prinyat-iii-forum-arktika-regiony-2025/>

제3회 ‘북극-지역들 2025’ 포럼, 지속가능 개발과 국제협력 논의 (2025. 7. 21.)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에서 제3회 ‘북극 - 지역들 2025’(Arktika - Regiony 2025) 포럼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북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산업적 개발, 사회경제적 성장 등 북극권 전반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는 북극권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과 실질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한겔스크주 알렉산드르 치불스키(Aleksandr Tsybul'skiy) 주지사는 이번 포럼에 대해 “연방 정부 인사, 각 지역 대표단, 초청된 외국 대표단과 함께 모여 북극 지역이 직면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고민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르한겔스크주 정부가 주최하고,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nd Arctic)가 후원한다. 공동 주관은 민간 조직인 네바(NEVA-International LLC)가 맡고 있다. 주요 파트너는 러시아 원자력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 PSB 은행(PAO Bank PSB) 등이다. 이는 북극 지역 개발에 있어 정부-공기업-민간 금융권 간 파트너십(PPP)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핵심적으로는 ▲국제 협력 방안, ▲북극항로(NSR) 개통 50주년 기념 주제, ▲북극 관광 개발, ▲북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그 외 다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 다변화 과제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본회의(plenary session), 주제별 세션(thematic sessions), 라운드 테이블 회의, 그리고 혁신 기술 및 프로젝트 전시회 등이 포럼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북극 개발을 위한 최신 기술, 인프라 솔루션, 지역 전략이 종합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북극 지역의 미래 비전 제시뿐 아니라 국가 안보 보장 및 북극 내 국가 이익 수호라는 전략적 사안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북극 생태계 보전과 그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지역 간 협력, 생물 다양성 보호, 기후 대응 전략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김지영 j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nauka.tass.ru/nauka/24502779>

바렌츠해 방사능 연구 해저 퇴적물 채취 착수 (2025. 7. 13.)

북극 부유 대학 (Arctic Floating University, APU) 탐사대 과학자들이 바렌츠해에서 방사능 연구를 위한 해저 퇴적물 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예브게니 야코블레프(Evgeny Yakovl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우랄지부 산하 북극 종합연구연방센터 (Federal Research Center for Comprehensive Study of the Arctic, FRC CSA)의 환경방사선학 실험실장은 해저 퇴적물은 해양 환경 내 부유물로부터 형성되어 방사성 핵종(라디오뉴클라이드)을 축적하는 주요 매체로 작용한다면서 이를 연구함으로써 러시아 서부 북극 지역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극이 과거 강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지역이었던 만큼, 해저 퇴적물은 현재 북극 생태계의 방사능 상태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이자 축적층이라고 강조했다.

바렌츠해에서의 방사능 연구는 2019년 ‘트랜스아크티카’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북극 부유 대학(APU)의 연례 탐사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여전히 방사성 물질의 재오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과거 노바야젬라 핵실험으로 빙하에 축적된 인공 방사성 물질이 해빙과 함께 바다로 유입되어 다시 해저 퇴적층에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코블레프는 이번 탐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빙하 해빙대(용융수 배출 전선)에 위치한 지역의 해저 퇴적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공 방사성 물질의 증가 추세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이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 정기적인 관측 체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APU-2025 탐사는 7월 9일 아르한겔스크에서 출항한 연구선 프로페서 몰차노프 호를 통해 진행되며, 8월 1일까지 항해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가 주관하며, VTB 은행(총괄 스폰서), 러시아 지리학회, 노릴스크 니켈(PAO GMK Norilsk Nickel),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교(MIPT) 산하 플로팅 유니버시티 조정센터 등이 후원 및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출처: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7/25/iqaluit-resident-virginia-mearns-named-canadas-arctic-ambassador/>

*누나부트 지역의 이누이트 권리 이행을 감독하고 대표하는 조직

북극 대사로 이칼루이트 주민 임명 (2025. 7. 25.)

〈그림〉 버지니아 미언스 신임 캐나다 북극 대사



자료: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7/25/iqaluit-resident-virginia-mearns-named-canadas-arctic-ambassador/>

캐나다 누나부트(Iqaluit) 거주자인 버지니아 미언스(Virginia Mearns)가 캐나다 북극 대사로 임명되었다. 이번 임명은 7월 24일 노스웨스트 준주 이누빅(Inuvik)에서 열린 이누이트-왕실 파트너십 위원회(Inuit-Crown Partnership Committee)회의에서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가 공식 발표하였다. 미언스는 이누이트 출신으로 현재 키키크타니 이누이드협회(Qikiqtani Inuit Association, QIA)에서 이누이트 관계 수석 국장을 맡고 있다. 또한 누나부트 정부에서 행정 및 대외관계부 부장관 등 여러 고위직을 역임한바 있다. 누나부트 툽가빅 주식회사(Nunavut Tunngavik Inc.)*에서도 10년 이상 근무하였다.

이번 임명은 2024년 12월 발표된 캐나다의 새로운 북극 외교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다. 이 정책에는 △알래스카 및 그린란드에 신규 영사관 개설, △북극 과학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북방 국가 외교 장관들과의 북극 안보 논의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키키크타니 이누이드협회는 이번 임명은 이누이트와 모든 캐나다인에게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하였다. 그의 경험과 북극 전역에 걸친 인적 네트워크는 캐나다의 외교와 통상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출처: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7/17/25-research-projects-to-receive-10-8m-funding-from-canadian-arctic-science-network/>

북극 과학 네트워크, 연구 프로젝트에 110억 원 지원 (2025. 7. 17.)

〈그림〉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 울루카흐톡(Ulukhaktok) 마을



자료: Eilís Quinn / Eye on the Arctic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지역사회인 울루카흐톡(Ulukhaktok)은 북극의 기후, 사회, 환경과 관련된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북부 커뮤니티 중 하나로, 현장 중심의 과학 협력과 원주민 참여형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사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가 지식 생산 주체로 참여하는 북극 과학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이와 같은 흐름은 캐나다 북극 과학 네트워크인 아틱넷(ArcticNet)이 추진하는 다학제적 연구 지원 사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틱넷은 북극 지역의 기후, 지정학,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5개 연구 프로젝트에 1,080만 캐나다 달러(약 110억 원)를 지원한다. 이번 연구들은 아틱넷이 2024년 캐나다 연방정부의 전략 과학 기금(Strategic Science Fund)의 일환이 된 이후 처음으로 지원한 프로젝트들이다. 제안서는 이누이트 타피리트 카나타미(Inuit Tapiriit Kanatami) 및 기타 북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되었다.

아틱넷의 과학 책임자인 필립 아르상보(Philippe Archambault) 박사는 이번 연구 프로젝트들은 북부 지역사회가 설정한 연구 우선순위에 따라 기획되었으며, 이는 실제 북부 주민들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연구들은 아틱넷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다양한 지식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북극에 대비하는 것이 조직의 핵심

북극권 국가 정책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출처: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7/17/25-research-projects-to-receive-10-8m-funding-from-canadian-arctic-science-network/>

가치이며, 프로젝트를 통해 캐나다의 다학제적 북극 과학 역량이 세계적 연구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틱넷은 이번 프로젝트들의 주요 강점 중 하나로 원주민 및 북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학계·지역사회·원주민 지식의 결합이 주요한 연구 접근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이 직접 환경 모니터링 및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받는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빙 감소나 식량안보와 관련된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틱넷의 24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트너 연구 프로그램(Partnered Research Program)은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아틱넷 외에도 게놈 퀘벡(Génom Québec)과 캐나다 극지 지식청(Polar Knowledge Canada)도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 Génom Québec은 80만 달러(약 9억 원)를 지원하며, 생물학적 시스템과 세포 수준 연구를 가능케 하는 오믹스(OMICS) 기반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한다.

또한, 아틱넷의 주요 프로젝트인 Polar Knowledge Canada는 190만 달러(약 20억 원)를 투입하여 북극 생태계 및 환경 변화와 지역사회 건강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 연구 결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북극 상황에 대한 정책 결정, 대응 전략 수립, 경제 기회 확대, 환경 관리, 북극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덴마크

글 엄단비 dbu@kmi.re.kr

출처: <https://defence-industry.eu/denmark-acquires-four-mq-9b-skyguardian-drones-in-historic-step-for-national-and-arctic-security/>

중고도 장기체공 드론 4기 도입... 북극 안보에 새로운 전기
(2025. 7. 23.)

〈그림〉 덴마크 MQ-9B 중고도 장기체공 드론 예상모습



자료: <https://breakingdefense.com/2025/07/denmark-orders-four-mq-9b-skyguardian-drones-for-arctic-missions/>

덴마크가 자국의 국방력과 북극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신예 무인 정찰기 'MQ-9B 스카이 가디언(SkyGuardian)' 4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구매 계약은 덴마크 국방 조달·물류청(FMI)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하 조달지원기구(NSPA)를 통해 체결했으며, 이번 계약에는 드론을 운용하는 지상 통제소 3기도 함께 포함됐다.

MQ-9B는 날개 길이 24m, 기체 길이 약 12m에 달하는 중대형 무인 항공기다. 조종석 없이 원격으로 조종되는 이 드론은 고성능 정밀 센서와 신호정보(SIGINT) 수집 장비를 탑재해 넓은 작전 반경을 자랑한다. 특히 혹한의 북극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클라우스 크비스트(Klaus Qvist) FMI 항공 사령부장(대령)은 "이번 도입은 덴마크 국방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며 "드론을 통해 전례 없는 감시·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NATO 동맹국들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MQ-9B를 제작한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A-ASI)에 따르면, 덴마크는 영국·벨기에·폴란드에 이어 이 플랫폼을 도입한 네 번째 유럽 국가가 됐다. 데이비드 R. 알렉산더(David R. Alexander) GA-ASI 사장은 "영국에서 군용형식인증(MTC)을 획득한 데 이어, 이제 덴마크까지 MQ-9B 운용국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극권 국가 정책



덴마크

이 드론은 극지방 작전을 위한 제빙 시스템과 민간 항공 통제구역 내 자율 비행이 가능한 탐지·회피 시스템, 극지 위성 통제 기능 등을 내장하고 있다. 영국 군용항공청에서 대형 무인기 최초로 군용형식인증을 받기도 했다. 트롤스 룬 포울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국방장관은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제 스스로를 더 강하게 방어해야 할 때"라면서 "북극과 북대서양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 도입은 유럽과 덴마크의 안보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결정적 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NSPA는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MQ-9B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 강화와 공동 훈련, 기술 공유 등 다자 협력 구조를 촉진하고 있다. 스테이시 A. 커밍스(Stacy A. Cummings) NSPA 총괄 책임자는 "이번 도입은 고급 상호운용 능력 확보를 위한 다국적 조달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덴마크의 전략적 해양 감시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크비스트 대령은 "이러한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국제 표준과 경험이 중요하다"며 "NSPA를 통한 NATO 국가들과의 협업 덕분에 도입과 운용 모두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MQ-9B 드론은 북극, 북대서양, 발트해 지역에서 덴마크의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평시에는 실시간 감시와 정보 수집,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과 구조 임무를 포함한 다목적 정찰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다만,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앞서 국내외 항공 통제 구역에서 민간 항공기와 안전하게 공역을 공유하기 위한 관련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기체 인도는 2028~2029년 사이로 예정되어 있으며, 덴마크 운용 인력은 미국에서의 사전 교육과 훈련을 거쳐 국내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조달에는 드론 본체와 통제소뿐만 아니라 훈련, 유지 보수, 필수 운용 장비 일체가 포함된 종합 패키지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 덴마크의 장거리 감시 및 극지 대응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북극권 국가 정책



핀란드

글 엄단비 dbu@kmi.re.kr

출처: <https://gcaptain.com/finnish-and-canadian-firms-make-a-move-to-build-arctic-security-cutter-icebreaker-for-u-s-coast-guard-by-2028/>

핀·캐, 美해안경비대용 쇄빙선 2척 '28년까지 공동 건조 (2025. 7. 14.)

핀란드와 캐나다 조선업체들이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위한 중형급 북극 안보 쇄빙선(Arctic Security Cutter, ASC) 2척을 2028년까지 건조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핀란드 라우마 해양조선소(RMC)는 캐나다 조선업체 시스팬(Seaspan)과 협력해 시스팬이 개발한 다목적 쇄빙선(MPI) 설계를 기반으로 쇄빙선을 제작할 계획이다. 해당 설계는 핀란드 선박 설계 전문회사 아커 아크틱(Aker Arctic)이 개발했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아커 아크틱도 포함됐다.

RMC는 최근 3년 동안 유사 선박을 건조한 실적이 있어 이번에 건조하는 쇄빙선을 2028년 말까지 인도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협상 단계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카 니에미넨(Mika Nieminen) RMC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보통은 우리가 제시한 사안 중 일부만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선박 설계, RMC의 생산 능력, 계약 세부 조건 등 기술적 사안 전반이 포함됐으며, 미국 해안경비대의 "매우 권위 있는 관계자"들이 협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선박 전문 전문가(Peter Rybski)에 따르면, 시스팬과 아커 아크틱 측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식은 RMC가 북극 안보 쇄빙선 건조 의향을 처음 밝힌 지 불과 석 달 만에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가 쇄빙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미국이 외국 조선사와의 협업을 본격 추진할 경우 국내 조선소를 앞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 자국 내에서 진행 중인 '극지 안보 쇄빙선(Polar Security Cutter, PSC)' 사업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미시시피주 볼린저 조선소(Bollinger Shipyards)에서 건조 중인 첫 번째 선박은 2030년 이전에는 인도되지 못할 것이라는 최근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두 번째 선박은 최소 2033년 이후에나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극권 국가 정책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가 발표한 신속 조달을 위한 요구 사항서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데, 시스팬의 MPI 설계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RMC는 제시된 일정 내에 두 척을 납품할 역량과 실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추가 선박은 기술 이전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현지 인력 교육과 생산 체계 구축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RMC-시스팬 협력 외에도 캐나다의 경쟁회사인 데이비(Davie)도 미국 쇄빙선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데이비는 최근 미국 텍사스에 있는 조선소 시설을 확보한 데 이어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에 이어 핀란드 강재 업체인 에너센스 오프쇼어(Enersense Offshore Oy)를 인수하면서 선체 강재 자체 조달 능력까지 확보했다. 이는 건조 기간 36개월을 맞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볼린저와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dison Chouest Offshore)가 공동 설립한 유나이티드 조선 동맹(United Shipbuilding Alliance)이 쇄빙선 추가 건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국가안보함정(NSC), 연안경비함(OPC) 등 주요 계약을 취소한 바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극지 안보 쇄빙선 사업 역시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으로 인해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 의회예산처(CBO)는 극지 안보 쇄빙선(PSC) 건조 사업 비용이 최근 몇 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향후 추가 비용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 미국 행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jyeong111@kmi.re.kr

출처: <https://arctic-russia.ru/news/pr odovolstvennaya-navigatsiya-nachalas-v-portu-peveka/>

최북단 도시 페벡에 여름 식료품 보급 운항 개시 (2025. 7. 21.)

7월 19일, 러시아 최북단 도시인 페벡(Pevek)에서 식료품 보급에 필요한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프리모르스키 지방에서 출항한 화물선 ‘페스코(FESCO) 파리스’ 호가 약 97톤에 달하는 식료품을 싣고 페벡 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은 축치해와 동 시베리아 해를 거쳐 쇄빙선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항해했으며, 토요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화물에는 20피트 컨테이너 9개 분량의 식료품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5개 컨테이너는 민간 사업자용이며, 나머지 4개는 공영 무역회사인 ‘차운스카야 무역회사’에 전달되었다.

페벡 행정당국은 이번 선적분 가운데 일부가 사회 필수 식료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3개의 컨테이너에는 감자, 양파, 사탕무 등 ‘보르쉬 세트’용 채소와 함께 토마토, 감귤류, 기타 과일이 포함되었다. 나머지 1개 컨테이너에는 치즈와 소시지, 해바라기유, 우유, 주스, 제과류 등 다양한 생필품이 실려 있었다. 현재 해당 식품들은 대부분 지역 창고로 옮겨져 상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어 7월 20일에는 두 번째 화물선인 ‘마이스 플로라(Mys Flora)’ 호가 페벡에 도착했다. 이 선박은 7월 1일 아르한겔스크에서 출항했으며, 동쪽 항로에서 원자력 쇄빙선 ‘시비리(Sibir)’의 호송을 받아 해빙 구간을 통과하였다. 마이스 플로라 호에는 4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식료품이 실려 있었으며, 주요 내용물은 감자 20톤, 사탕무 2톤, 양파 1톤, 사과 및 기타 신선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식품들 또한 지역의 공영 및 민간 상점으로 이미 유통되기 시작했다.

한편, 페벡 외곽 지역의 소규모 마을에도 이러한 사회 필수 식품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항공사 ‘추코트아비아(ChukotAVIA)’의 헬기 가 운항할 예정이다. 이번 식료품 운송은 극북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초광역 선도 개발구역제도(슈퍼 TAR) 도입 추진 (2025. 7. 11.)

러시아 정부는 극동 및 북극 지역 전역에 단일 기업 우대제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체쿤코프(Alexei Chekunkov)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새로운 투자가야말로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채우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체쿤코프 장관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에서 열린 연방 입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날 우리는 극동과 북극 지역에 대한 투자 매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극동과 북극 지역 전역을 포괄하는 단일 우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의 모델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회 동방경제포럼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2025~2026년에 법안을 국가두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체쿤코프 장관은 이번 단일 제도를 통해 극동과 북극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기존 제도들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극동과 북극 지역에는 TAD(선도개발구역), FPV(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AZRF(북극 우대구역), SAR(특별행정구역) 등 다양한 약어로 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들은 대부분 유사하고, 차이는 세부적인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간소화하고자 모든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슈퍼 TAR’, 즉 초광역 선도개발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슈퍼 TAR은 극동과 북극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 체계가 될 것이며, 기존 제도들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발전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거주자 지정과 기업과의 협력은 재무부의 디지털 시스템 및 세무 시스템과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최소 투자금 1,000만 루블(약 12만 달러), 세제 모니터링, 선택형 인센티브, 일부 업종의 경우 증권 상장 조건 등을 도입해 대규모 신규 기업 유치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글 김지영 jijeong111@kmi.re.kr

출처: <https://tass.com/economy/1988467>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5/jul/04/canada-ice-breakers-arctic>

31억 5,000만 달러 투입 쇄빙선 건조 (2025. 7. 4.)

수천 년 동안 북극 해빙은 계절에 따라 크기를 달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 위기로 다년생 해빙이 급감하면서, 부서진 얼음들이 북극 해협을 가로막고 있다. 기후변화로 쇄빙선이 필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쇄빙선이 필요하다.

캐나다 정부는 급변하는 북극 환경과 지정학적인 위기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쇄빙선 건조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중국·미국과 함께 ‘쇄빙선 개발 경쟁’에 나섰다. 캐나다는 현재 길이 520피트(약 158m), 영하 50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극지 쇄빙선을 5년간 약 31억 5,0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입해 건조 중이다. 신형 쇄빙선은 캐나다 해안경비대의 다목적 임무 수행을 전제로 설계된 고기능성 쇄빙선이다. 캐나다 북극 수역 및 북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연중 항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수색 및 구조, 환경오염 대응, 항해 지원, 쇄빙 임무 및 북극 과학 임무 지원의 역할도 한다. 이는 캐나다의 국가 조선 전략(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의 중심축으로 쇄빙선 건조 지원과 행정적 실책이라는 과거 오명을 씻고, 북극에서 캐나다의 존재감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현재 밴쿠버에 있는 시스팬(Seaspan)社에서 60mm 두께 특수 강판으로 얼음 10피트 두께까지 돌파할 수 있는 북극 클래스 2급 쇄빙선을 건조 중이다. 또한 퀘벡에 있는 다비 조선소(Davie Shipyards)도 자체 쇄빙선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헬싱키 조선소를 인수하고, 2025년 6월 미국 조선소도 추가 인수하여 202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쇄빙선 건조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비 조선소는 북미와 북극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조선 공급망 구축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미 해안경비대의 공급업체로의 진입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는 복잡한 조선 기술, 긴 건조 기간, 고비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북극에서 영토 주권 확보와 해상 안전보장을 위한 쇄빙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엄단비 dbu@kmi.re.kr

출처: <https://www.datacenterdynamics.com/en/news/norwegian-investment-firm-aker-to-develop-arctic-data-center-in-narvik/>

북극 나르비크에 데이터 센터 건립 추진 (2025. 7. 19.)

노르웨이의 산업 투자회사 아케르(Aker)가 자국 북부 나르비크(Narvik) 지역에 북극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르비크는 북극권에서 약 250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기후적·지정학적으로 북극 진출의 핵심 거점 중 하나이다. 이번 개발은 노르웨이 북극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와 전략적 기술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는데, 아케르는 이를 통해 극지방의 에너지, 안보, 물류 등과 연계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 일정이나 비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아케르는 이미 나르비크에서 부지 확보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그리고 나르비크가 북극 해상 운송로와 유럽 본토를 잇는 접점 지역에 위치한 점, 수력 기반 청정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노르웨이의 정치적 안정성 등을 주요 입지 장점으로 꼽았다. 아케르는 이번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저장·처리 설비를 넘어, 향후에는 북극 항로 감시, 기후 변화 모델링, 위성 데이터 분석, 방위·보안 체계 통신 처리 기능까지 수용할 수 있는 북극 디지털 허브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르비크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가 북극 방어·산업 전략의 주요 지점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극지 철도, 북극항로, 군사·통신 시설과의 연결성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아케르의 투자 추진이 디지털 주권과 북극 기술 우위 확보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아케르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와 다수의 북극 관련 기술기업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데이터센터가 완공될 경우, 극지 기후 감시, 북극항로 통신망, 해저 케이블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르비크가 북극권의 전략적 디지털 관문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옵서버 국가 산업·경제



중국

중국계 선사, 북극항로 활용 중국-유럽 컨테이너 서비스 (2025. 7. 25.)

2025년 7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중국계 해운사 시 레전드 해운(Sea Legend Shipping)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 컨테이너 서비스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북극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 운송 루트로, 기존의 수에즈 운하 및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 루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Sea Legend는 2025년 9월 첫 항차에 4,890TEU급 컨테이너선 이스탄불 브릿지(Istanbul Bridge) 호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중국 칭다오(Qingdao)에서 출항하여 상하이(Shanghai), Ningbo(Ningbo)를 경유한 뒤, NSR을 따라 러시아 북부 해역을 통과하고 영국 펠릭스토(Felixstowe),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독일 함부르크(Hamburg), 폴란드 그단스크(Gdansk) 항만에 도착할 예정이다. 운항 소요 기간은 약 18일로, 기존 항로 대비 운항기간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번 서비스는 연 1회 운항하는 계절성 노선으로, 첫 항차는 이미 전 구간 예약이 완료(full booking)된 상태라고 선사는 밝혔다.

월드 에너지(World-Energy)는 Sea Legend가 2023년 시험적으로 운항한 플라잉 피시(Flying Fish 1)의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번 항차가 북극항로를 통한 상업 운항으로의 전환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번 운항에는 러시아 쇄빙선 지원체계가 활용될 예정이며, Sea Legend는 세이프트란스 라인(Safetrans Line)과 협업을 통해 북극 해역 시험 항차 경험을 바탕으로 상업 서비스를 전환하였다. 현재 NSR을 통한 아시아-유럽 간 항로 개척은 환경적 제약과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사를 중심으로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Sea Legend의 이번 서비스는 중국계 해운사의 북극항로 상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운항 지속 여부와 노선 확대 가능성에도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글 정다현 dhj82@kmi.re.kr

출처1: <https://splash247.com/sea-legend-launches-china-europe-arctic-container-service/>

출처2: <https://www.world-energy.org/article/53109.html>

남극소식

제47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및 제27차 환경보호위원회 밀라노에서 성료 (2025. 7. 4.)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제47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47)와 제27차 환경보호위원회(CEP 27)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이탈리아 외무·국제협력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가 주최하였으며, 밀라노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총 450명의 공식 등록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58개 협의 당사국 및 비협의 당사국, 옵서버 및 초청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남극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긴급히 다뤄진 의제 중 하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남극 생물에 대한 영향이었다. 최근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HPAI 바이러스는 남극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매우 공격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의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감시 체계 구축, 생물 안전(Biosecurity) 프로토콜 마련, 국제기구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주요 논의 주제는 남극 생태계 내 환경오염,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였다. 참가국들은 오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전략 개발과 함께, 혁신적 대응 방안 및 모범 사례의 국제적 공유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였다.

남극에서의 관광 및 기타 비정부(non-governmental) 활동에 대한 포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의 틀을 구성하고, 규범적인 가이드스를 확립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강조되었다. 또한 남극조약의 원칙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 및 대중 인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재확인되었다. 참가국들은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 조약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적 이니셔티브 확대에 공감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남극조약 사무국 사무국장으로 칠레의 프란시스코 베르구뇨(Francisco Berguño) 대사를 선출하였다. 한편, 제48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48)는 2026년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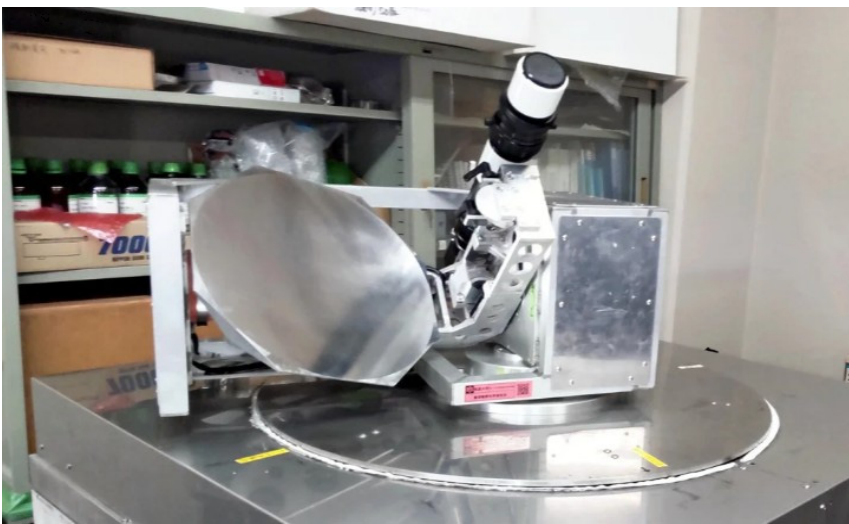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출처: <https://www.ats.aq/devph/en/news/294>

남극소식

일, 남극에 자국 최초 전파망원경 설치...‘26년 우리은하 시험 관측 예정
(2025. 6. 20.)

〈사진 1〉 30cm 소형 전파망원경



자료: <https://japannews.yomiuri.co.jp/science-nature/science/20250610-262133/>

글 김주형 jhkim7664@kmi.re.kr

출처1: <https://datazoo.jp/tv/NHK>

출처2: <https://japannews.yomiuri.co.jp/science-nature/science/20250610-262133/>

출처3: <https://www.yomiuri.co.jp/science/20250529-OYT1T50004/>

일본 츠크바 대학, 국립극지연구소, 홋카이도대학 소속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팀이 개발한 구경 30cm의 소형 전파망원경이 남극에 설치될 예정이다. 일본의 전파망원경이 남극 대륙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내년에는 시험 관측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파망원경은 가시광선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우주의 영역을 보기 위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포착하는 장비다.

일본 관측팀은 지난 2024년에 이미 망원경 지지대와 발전 장비를 설치했으며, 망원경 본체는 올해 쇄빙선 시라세호를 통해 남극으로 수송된다. 남극은 대기가 맑아 우수한 관측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 전파망원경은 남극 해안에 위치한 일본 쇼와기지에서 약 1,000km 내륙으로 떨어진, 해발 3,800m 고지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에 이를 정도로 극한의 환경이지만, 공기 중 수증기가 거의 없어 우주 전파에 대한 간섭이 적으며, 또한 대부분 맑은 날씨가 지속돼 관측 조건으로 탁월하다. 다만 여름철에도 최고 기온이 영하 20도에 불과해 망원경의 전자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구팀은 망원경 외부를 단열재로 감싸고 내부에 난방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극소식

한편, 현재 미국은 남극점에 구경 10m의 대형 전파망원경을 운영 중이나, 해당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관측 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연구팀은 2026년부터 우리 은하를 대상으로 시험 관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은하 내 가스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가스가 모여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관찰하려는 목적이다.

연구팀은 또한 혹한의 환경에서도 정밀한 관측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정교화하고, 향후 구경 12m의 대형 망원경을 갖춘 국제 공동 관측 기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기지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머무르며 미지의 은하를 관측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구의 거점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츠쿠바대학 전파천문학과 쿠노 나리오(久野成夫) 교수는 “국제 공동 관측 기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관측 경험을 축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 2〉 전파망원경 설치 예정 남극 위치



자료: <https://www.yomiuri.co.jp/science/20250529-OYT1T50004/>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장

글 김엄지 umjikim@kmi.re.kr

출처: 덴마크 왕국의 북극이사회 의장
국 프로그램

새로운 북극이사회 의장국 덴마크 왕국 : 향후 미션과 정책 시사점

덴마크 왕국(그린란드, 페로제도, 덴마크로 구성)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북극이사회의 의장국을 맡으며, 북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설립 이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는데도 국제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유지해 온 대표적인 지역다자 협의체이다.

이번 의장국 프로그램은 형식적 리더십을 넘어, 실제 북극 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청년 세대의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북극권 3개 구성체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과학과 전통지식(Indigenous Knowledge)의 균형 있는 활용을 강조하며, '포용적(inclusive) 의장국'을 핵심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의장국 프로그램('25-'27) 주요 내용

덴마크 왕국의 의장국 프로그램은 (1) 북극 원주민과 공동체, (2)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에너지 전환, (3) 북극 해양, (4) 북극의 기후변화, (5) 생물다양성 등 크게 다섯 가지 우선순위로 구성된다.

(1) 북극 원주민과 공동체

덴마크 의장국 프로그램은 북극 원주민과 공동체 권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북극이사회의 상설참여자(Permanent Participants)가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세대의 역할도 강조했다. 노르웨이 의장국 시절에 시작된 Arctic Youth 프로그램을 계승·확대하고, 지역 청년들이 북극이사회의 다양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역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진다. 덴마크는 지역 보건 체계와 연계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Local2Global)의 범위를 확장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문화적 접근 기반의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성평등 추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이는 2021년 레이카비크 선언에서 채택된 『Pan-Arctic Gender Report』의 후속 이행을 통해 구체화된다. 특히 여성 대상 폭력, 청년 여성의 이동성, 건강 문제 등에 관한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이

강조된다. 이 외에도 북극 지역 내 의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 간 의료자원의 공동 조달, 의료 정보 공유 메커니즘 개발 등의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자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에너지 전환

덴마크 의장국 프로그램은 북극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경제개발 모델을 촉진하여, 외부 자본 의존이 아닌 자립적인 지역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방향은 단순한 투자 유치보다는 북극 지역 내부의 역량 강화와 순환형 경제구조 형성을 지향한다. 즉, 전통적으로 북극 공동체의 생계 기반이 되어온 사냥, 어업, 농업, 축산 등 1차 산업에 대해서는 현대화와 가치사슬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통 산업이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경제 흐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덴마크는 블루 바이오 산업을 북극 경제 전략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주목하고 있다. 해조류 양식과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수산물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는 Power-to-X 기술¹⁾, 친환경 연료, 마이크로 그리드 등 신기술의 북극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기후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연결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북극지역 주민이 원격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3) 북극 해양

덴마크 왕국은 해양 연결성, 생물 종의 이동, 기후 변화 영향, 오염물질 이동 등을 주제로 한 대규모 국제 해양회의를 2026년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극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해양 오염 대응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수중소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과불화화합물(PFAS) 등 북극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저감 전략을 과학 기반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북극 생태계뿐 아니라 해양 식량 체계와 원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긴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덴마크는 해양공간계획(MSP)을 통한 체계적인 해양 이용 조정과 보전 정책을 확대하

려 하고 있다. 기존의 보호구역 외에도 기타 효과적인 보전 조치(OECM)를 식별·지정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해양 보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해상 안전과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북극 해역을 운항하는 크루즈선 및 여객선의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기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지역 기반의 응급 대응 훈련 및 장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해양 거버넌스 설계 과정에서 원주민의 전통지식과 현대 과학 정보를 융합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과 함께, 원주민 권리 존중 및 참여 보장을 통해 북극 협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북극의 기후변화

덴마크 의장국은 북극 지역의 급속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후 변화 모니터링의 강화이다. 영구동토층 해빙, 해빙 축소, 생물 다양성 손실, 생태계 구조 변화 등 북극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물리적 변화를 추적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 대응과 국제 협력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기 기후오염물질(SLCPs)인 블랙카본과 메탄 감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온실가스 중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하며, 북극에서의 빙하 용해 가속화와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덴마크는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검증된 감축 사례들을 공유하고, 기술 및 정책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SLCP 감축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후협상 플랫폼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외교적 전략도 주목된다. 북극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실질적 사례, 그리고 그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원주민 공동체의 경험이 국제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덴마크는 북극 국가 및 옵서버 국가와의 협조를 확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와 지역 주민 건강 및 생활의 연계성에 주목한 접근이 특징적이다. 기후변화가 원주민 공동체의 식량안보, 전통적 생활양식, 정신건강,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정책들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극의 기후 정책이 생태계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5) 생물다양성

덴마크 의장국 프로그램의 마지막 핵심 주제는 북극의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북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생태계를 가진 지역 중 하나로,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의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이를 인식한 덴마크는 ‘북극 생물다양성 행동계획(2025~2035)’을 수립하고, 이를 북극이사회의 중장기 전략계획(Arctic Council Strategic Plan 2021~2030)과 정렬시켜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종의 확산에 대해서는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전략을 우선시할 방침이다. 기온 상승과 해양 운송 증가에 따라 북극으로 유입되는 침입종은 토착 생물종에 위협이 되며,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생물 다양성 감시체계 구축과 연구 협력을 통해 사전 대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Circumpolar Biodiversity Monitoring Program (CBMP)의 기능을 강화하여, 북극 전역에서 수집되는 생태계 데이터의 통합·표준화를 추진한다. 국가 간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통해 공동의 분석 및 정책 대응이 가능해지고, ‘북극 생물 다양성 현황 보고서(State of Arctic Biodiversity Report)’의 정기 발간을 통해 과학 기반의 정책 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주민 데이터 주권(Indigenous Data Sovereignty)의 개념을 반영한 데이터 정책 수립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원주민 공동체가 자신들의 전통지식과 생태 관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보장하면서도, 이 데이터가 정책 개발 및 과학 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 체계를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덴마크는 북극 생물다양성 정책이 쿤밍-몬트리얼(Kunming-Montreal)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와 긴밀히 연계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의 지표 및 목표와의 정렬을 통해 북극 차원의 활동이 국제 생물 다양성 거버넌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북극이사회가 글로벌 차원의 생태 거버넌스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장국 프로그램('25~'27) 특징

첫째, 원주민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북극이사회의 ‘인간 중심 접근’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덴마크는 원주민 청년, 정신건강, 성평등, 지역 보건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며, 상설참여자(Permanent Participants)의 실질적 영향력 확대를 약속했다.

둘째,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은 북극 주민의 자율성과 지역 내 경제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통 산업(수렵, 어업 등)부터 에너지 전환, 광업, 해양바이오 산업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포함되며, 비북극국과의 경제협력도 유연하게 허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북극 해양 부문에서는 해양 연결성 증진, 해양 오염(미세플라스틱, 수중 소음) 대응, 공간 계획 및 보전 구역(OECM) 개발, 해상 안전 등이 포함된다. 이는 북극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이며, 과학적 모니터링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크루즈 선박의 증가에 따른 사고 대응 역량 강화도 중점 과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단기 기후오염물질(블랙카본, 메탄) 감축과 더불어 UNFCCC 등 국제 협의체와의 연계를 강조하며, 북극 지역 실태에 기반한 기후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세 배 빠른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생태계뿐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덴마크는 북극 목소리를 국제 기후 협상에 반영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다섯째,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는 '북극 생물다양성 행동계획(2025~2035)' 수립과 전 지구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BF)와의 정렬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북극 고유의 생물종 보전과 외래종 유입 대응 등 실질적인 생물 다양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북극 지역 데이터 접근성과 토착민 데이터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덴마크 왕국의 의장국 프로그램 차별성

이번 덴마크 의장국 프로그램은 과거와 비교해 몇 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주제 선정의 차이를 넘어, 북극이사회의 운영 방식과 정책적 초점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포괄성(inclusiveness)과 현장 밀착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과거 일부 의장국이 과학 협력이나 환경 보호 등 특정 이슈에 치중했다면, 덴마크는 보다 균형 잡힌 5대 어젠다 체계를 설정하고, 각 주제별 세부 프로그램을 구조화했다. 이는 기후·경제·생태·사회 등 북극 거버넌스의 핵심 영역을 모두 망라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또한 정책 간 교차 연계성(cross-sectoral linkage)을 강조함으로써



부처 간,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의장국의 역할이 ‘정치적 중재자’로 제한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원주민의 생활 기반 개선과 ‘보건·교육·디지털 연결성’ 등 인간 안보적 요소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극을 단지 기후변화나 자원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삶의 터전이자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려는 전환의 시도이다. 특히 정신건강, 청년 이동성, 여성폭력 문제 등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관련 데이터 수집과 정책 실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있어서 기존 의장국보다 더욱 실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특히 블루바이오 경제, 해조류 양식, Power-to-X 기술 등은 향후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 사전투자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덴마크는 북극 지역이 단지 원자재 공급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산지이자 기술 실증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적 기반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투자 연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넷째, 덴마크는 의장국 간 연속성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전임국인 노르웨이의 청년참여 확대를 계승하고, 캐나다와의 협력으로 ‘지역-글로벌 연결(Local2Global)’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이는 북극이사회가 단절 없는 협력 거버넌스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각 의장국의 역점 과제를 존중하면서도 다층적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특히 청년과 원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북극 거버넌스의 세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덴마크의 의장국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북극 정책 방향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북극을 단지 해상 통로나 자원 공간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인간 중심 거버넌스의 실험장으로 보는 관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 책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북극과의 협력 방식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북극항로 활용과 에너지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경제 중심적 접근을 넘어 원주민 협력·청년 교육·보건의료·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북극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술과 자본에 강점을 지닌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북극 지역 사회의 실질적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극권 원주민과의 지속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은 장기적 신뢰 기반 구축에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덴마크가 제시한 블루바이오, 지역 기반 해양자원 활용, Power2X 등의 의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산업의 북극 시장 진출과 연구개발(R&D)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수산양식, 해조류 가공, 청정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선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극 지역을 실증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은 K-해양기술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현재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과학·환경 분야 기여에 집중해 왔으나, 향후에는 현장 공동연구, 인적 교류, 지역 경제협력 플랫폼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대학과 북극권 대학(UArctic) 간 협력 확대, 북극 원주민 공동체 대상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 등은 우리나라의 참여 가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북극이사회 하위 실무그룹 활동에 보다 전략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있다.

넷째, 덴마크의 포용적·실용적 의장국 접근은 한국이 비북극권 국가로서 갖는 ‘중립적 조정자’ 또는 ‘연결국가(bridge state)’의 역할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중·러 간 갈등 속에서 특정 진영에 편중되지 않은 협력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재형 외교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 북극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모범 사례로 기능함으로써 옵서버 국가 중에서도 독자적인 외교적 위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 잉여 전력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 P2X는 전기를 기체 연료(P2G), 액체 연료, 열(P2H), 또는 화학 물질로 전환할 수 있음

북극과 사람

‘북극권 청년(Arctic Youth)’, 북극의 미래 세대이자 오늘의 주체 - 북극을 바꾸는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

글 김주형 jhkim7664@kmi.re.kr

■ 들어가며

- 기후변화, 자원 개발,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북극 지역을 둘러싼 글로벌 이슈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북극권청년이 새로운 정책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 청년을 포함한 북극권 청년들은 기후 위기에 직면하면서 삶의 터전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며, 과학, 정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북극권 청년들의 조직적 활동과 국제 무대에서의 참여 현황을 조망하고, 이들이 북극 거버넌스 및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청년 네트워크 및 단체 조직 활동

- “상시참여그룹 청년 네트워크”(Permanent Participants Youth Network, 이하 PPYN)는 2019년 아이슬란드 흐베라게르디(Hveragerði)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고위관계자(SAO) 회의 논의에 따라, 북극이사회 상시참여그룹(Permanent Participants)에 속한 원주민 청년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네트워크이다. PPYN은 기후변화와 자원 개발로 인해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문화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원주민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PPYN의 출발점은 2019년 11월 핀란드 로바니에미(Rovaniemi)에서 열린 Arctic Leaders' Youth Summit, AYLS)이다. 북극이사회 상시 참여그룹의 청년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다. AYLS에는 북극 전역의 원주민 청년들이 모여 서로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전 세계 청년들의 권리 요구 흐름에 북극 청년들도 함께한 것이었다.
- 각 단체의 청년 대표들은 PPYN을 통해 북극이사회 내 주요 회의에 참석하거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엔 원주민 문제 포럼(UNPFII), 북극이사회 회의와 같은 다자 회의에서 공동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주요 활동은 북극이사회 및 관련 기구와의 청년 의제 연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전통지식 보존, 문화 정체성에 관한 발언 및 제안, 국제회의 내 원주민 청년의 발언권 확보 및 공동 성명 발표, 청년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지역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 운영 등이다.
- “북극 청년 네트워크”(Arctic Youth Network, 이하 AYN)는 북극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국제 비영리 네트워크로 북극권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북극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북극동식물보전(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CAFF)는 “Inspiring Arctic Voices through Youth”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 단체의 창립을 지원했다. 특정 국가나 제도에 종속되지 않고, 온라인 기반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본부는 북극권 각지에 있으며, 국제협력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 AYN은 모든 북극 청년이 평등한 자원 접근과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포용적 세상 조성을 비전으로 한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변화 주도하는 청년들을 연결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며, 학습·협업·실행을 통해 북극 이슈에 청년 목소리 확산을 미션으로 한다. AYN의 공식회의인 연례 총회(Annual General Meeting)를 통해 전세계 북극권 청년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직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
- AYN은 주제별 워킹그룹을 운영하는데 이 워킹그룹들은 반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AYN 플랫폼의 일부로 활동한다. 현재, AYN은 북극 원주민과 북극해의 두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북극 원주민 워킹그룹’은 북극 원주민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제(교육 접근성, 자원 부족, 의사소통 장벽, 자금 지원 제약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 지식 공유 및 협업 활성화, 주민 청년과 연구자들이 콘퍼런스·행사·공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자료의 접근성 확대 및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한다. ‘북극해 워킹그룹’은 전 세계 청년이 북극 해양 거버넌스,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양 생물다양성, 해양 오염, 기후변화와 해양 간 상관관계, 해양 거버넌스 및 연안 지역 공동체 문제 등을 주제로 해양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공동 학습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토론 청년 주도 플랫폼 형성, 인간 활동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식 강화, 북극 해양의 중요성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 메시지 마련 등의 활동을 한다.
- “Arctic Youth Dialogue”(이하 AYD)는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Youth Together for Arctic Futures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북극 및 유럽 청년 간의 협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3년에 출범한 청년 참여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북극 지역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과 함께 북극 이슈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장을 제공한다. 북극과 유럽 출신의 청년들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 환경, 문화, 사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며, 해당 의제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2025년 6월 개최한 AYD에는 유럽과 북극권 전역의 다양한 청년 약 36명이 참여하였고, 워크숍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청년 기반 행동 제안(Youth Needs-Based Suggested Actions for a Just and Sustainable Transition)’이라는 주제로 ① 청년 포용적 북극 정책 기획, ② 환경 보호를 위한 경제 인센티브 설계, ③ 북극 기후 적응 전략, ④ 북극 해양 관리 및 접근성 향상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공동 작성하였다.

[그림 1] Arctic Youth가 활동하는 다양한 플랫폼



자료: <https://www.arcticpeoples.com/youth#arctic-youth>,
<https://arcticyouthnetwork.org/>,
<https://eyp.org/news/news/the-arctic-youth-dialogue>

■ 나오며

- 이상에서 북극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소개하였다. 북극 청년들은 기후 위기와 문화 변화의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며, 지역 공동체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AYN, PPYN, AYD와 같은 플랫폼은 청년들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참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협력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역량 강화, 교육 기회 확대, 정책 참여 메커니즘 설계 등 청년 활동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출처〉

<https://arcticyouthnetwork.org/>
https://arcticyouthnetwork.org/ayn_events/agm-2025/
<https://arcticyouthnetwork.org/working-group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5_1656
<https://eyp.org/news/news/the-arctic-youth-dialogue/>
<https://open.spotify.com/show/3sq6akaaLadSkGhjmT4hvd>
<https://www.arcticpeoples.com/youth>
<https://www.arcticpeoples.com/youth#arctic-youth>
<https://www.arcticwwf.org/newsroom/news/arctic-youth-dialogue-2025-call-for-participants-22-27-june-2025-in-kittila-finland/>
<https://www.caff.is/work/projects/inspiring-arctic-voices-through-youth/arctic-youth-network/>
https://www.arcticwwf.org/newsroom/news/policy-recommendations-from-the-2025-arctic-youth-dialogue/?utm_source=chatgpt.com

극지e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
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극지e야기 KPoPS 회의, 조약, 동향 등을 검색해보세요 홈 | 사이트맵 | English

소개 극지 정책 극지 협력 극지 동향 극지 소식

IBRV ARAON

쇄빙선 아라온호

연구와 보급지원 항해로 남북극을 두바다
남/북극지방에서 연구·보급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중이다

쇄빙선 아라온호 둘러보기

공지사항 + 국가 정책 및 제도 + SNS소식 < > +

공지	2019 우수 미래 극지연구자 국외 표	2019-01-18	비북극	[중국] 중국 남극과학탐사대 눈보라	2019-01-29
공지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	2018-11-28	비북극	[일본] 미츠비시 산업, 러시아 노바텍	2019-01-29
공지	2017년 발간 북극이사회 자료 국문	2018-10-05	북극	[미국] 미국, ANWR 개발 관련 환경	2019-01-28
공지	2018년도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	2018-09-20	비북극	[중국] <중국북극발전 및 안보전략	2019-01-28
공지	2018년 극지전문인력양성(북극) 프	2018-09-04	북극	[러시아] 자원환경부, 고난이도-고	2019-01-28

극지연구센터 2019-01-31
대외경제협력, 가스운반선 건조에 185억
두블 대출 예정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는 최근 열렸던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
베타(Sabeta) 항 천연가스 사업 발전의 일
원인 신형 북극해 천연가스 왕복운반선 건
조에 대외경제협력(MEB)이 185억 루블 규
모의 대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외역는 자원개발에 따른 원료 생산량 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극 및 남극과 관련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MI 홈페이지-정기간행물-
극지해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정보 동향정보 세미나 KMI소식 KMI소개 고객서비스 정보공개 구독 신청 | ENGLISH 🔍 f t in ig yt

동향정보 극지해소식 ☰ 동향정보 ▶ 발간 간행물 ▶ 극지해소식

* 구독 신청

발간 간행물

- * KMI 국제물류워클리
- * KMI 주간 해운시장포커스
- * KMI 주간 주요수산물 수급리포트
- *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 * 아시아선리포트
- * 극지해소식
- * KMI 북방물류리포트
- * KMI 동향분석
- * 항만과 산업
- * KMI 항만 서비스 지표
- * 국제해양장세리포트
- * 해양수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 * KMI 인포그래픽
- *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 * KMI 해운시황보고서
- * Position Paper

* 중간 간행물

극지해소식

번호	호수	발행일	조회 / 다운	파일
99	제134호	2024-04-30	72 (56)	
98	제133호	2024-03-29	116 (78)	
97	제132호	2024-02-29	105 (105)	
96	제131호	2024-01-31	92 (61)	

☐ 극지 동향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향정보지입니다.